

갈비찜엔 ‘말벵’... 전엔 ‘리슬링’

아모레퍼시픽 작년 영업이익 5495억... 25% ↓



(왼쪽부터)카이켄 울트라 말벵, 짐 배리 랫지힐 쉬라즈, 구스타브 로렌츠 리슬링, 카스텔블랑 엑스트라 브르. /나라셀라

서양 음식은 코스 형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나온다. 어울리는 와인을 고르기 쉽다. 에피타이저엔 상큼한 식전주를 곁들이고, 메인요리는 재료에 따라 레드나 화이트와인을 선택하면 된다.

우리 좀 다르다. 밥과 국을 필두로 온갖 메인요리와 반찬들이 그득하다. 특히나 다가오는 설 같은 명절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빼곡히 차려야 제맛이다.

그러나 어울리는 와인을 내놔야 할 입장에서선 푸짐할 수록 소위 ‘멘붕’이다. 한 상에 고기와 생선 등 그 재료 뿐만 아니라 갖은 양념이 어우러진다. ‘와린이(와인+어린이·와인초보자)’들이 공식마냥 생각했던 붉은 육류에는 레드와인, 흰색 육류나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을 적용할 수도 없다. 맛도 적당한 염분에 매운맛, 단맛, 신맛, 쓴맛까지 모두 한 상에 올라와 있다.

해법은 있다. 요리의 조리방법과 양념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먼저 갈비찜과 산적, 불고기와 같은 양념된 육류 요리다. 깊고 묵직한 레드와인

‘구스타브 로렌츠 리슬링’은 리슬링 100%로 만들어졌다. 매우 투명하고 밝은 노랑빛에 레몬 라임과 복숭아, 사과와 같은 과일의 향이 어우러진다. 풍성한 과실과 적당한 산미는 입 안을 신선하게 해주고, 알자스 리슬링 특유의 미네랄 풍미가 와인의 맛을 살려준다. 전 뿐만 아니라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찜과도 마시기 좋다.

고추 양념이나 김치 등의 재료가 듬뿍 들어간 요리에는 과일과 향신료의 맛이 나고, 다소 달콤한 느낌이 나는 와인을 고르는 것이 좋다.

맛이 진하고 걸쭉한 찌개에는 요리의 맛에 눌리지 않고 제 맛을 낼 수 있을 만큼 진한 와인이 필요하다.

명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카스텔 블랑 엑스트라 브르’ 같은 유쾌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것도 좋다. 입 안을 섬세하게 가득 채우는 기포가 끊임없이 힘있게 피어오르며 일하면서 지친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다.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이 가볍게 느껴지며, 긴 여운은 바삭하게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식전주로도 훌륭하며, 대부분의 쌀 요리와 잘 어울린다.



자료 협조 C E L L A R

매출 6조782억... 전년비 1% 늘어 올해 경영목표, 영업이익 24% 성장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난해 6조 782억 원의 매출과 54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감소했다.

2018년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1조 3976억 원, 영업이익은 82% 감소한 16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혁신 상품 개발, 고객 경험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라는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했다. ‘설화수 설린 라인’, ‘라네즈 크림 스킨’, ‘마몽드 올 스테이 파운데이션’, ‘이니스프리 비자 시카 밤’, ‘에뛰드 미니 투 매치’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했고, ‘아리따움 라이브 강남’, ‘헤라 메이 크업 스튜디오’ 등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했다. 또 중동,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신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시장도 다각화했다.

올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전년 대비 10%의 매출 성장과 24%의 영업이익 증

가를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새로운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브랜드 마케팅과 영업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초격차 혁신 상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 옴니 채널 기반의 고객경험 고도화, 디지털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고객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슬리핑 뷰티’, ‘맞춤형 화장품’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새로운 뷰티 카테고리 발굴하고, 면세와 e커머스 등 성장하는 유통 채널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뷰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 확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국에서는 설화수를 필두로 럭셔리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니스프리를 중심으로 중국 내 3~4선 도시 진출도 가속화한다. 성장 가속도가 붙은 북미 시장에서는 라네즈, 이니스프리, 마몽드 등 기존 진출 브랜드가 매장을 확대하고, 프리메라 등 신규 브랜드가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설 연휴때 해외로 떠난다면...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신청해야”

금감원 신용카드 해외 유의사항 원화결제 수수료 추가 부담 방지

#. 해외 여행을 떠난 A씨는 쇼핑을 하면서 1000달러 짜리 가방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봤지만 별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귀국 후 카드대금이 1000달러가 아닌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됐다. 확인해보니 가방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 (50달러)가 추가된 것. A씨는 결국 현지 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해야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미리 DCC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

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해외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사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 전 여권상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여행 중에는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결제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설 연휴에 옷·화장품 사면 혜택 ‘와르르’

-패션 유니클로 2주동안 특별가 행사 진행 컬리수 리본벨트·보냉백 등 사은품



(위쪽부터)랑콤의 ‘제니피끄 에센스 75ml 세트’ 컬리수의 ‘다이어 퀘팅 패딩 점퍼’ /각사

-뷰티 랑콤 금액대별 더블 마일리지 적립 아앤드 베스트셀러 제품 할인 혜택

패션·뷰티업계가 설 연휴 동안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합리적인 가격 구성과 실속있는 증정품 등이 마련된 만큼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패션·뷰티 브랜드 제품을 설 연휴 기간 동안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금액대별 사은품이 증정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니클로와 지유(GU)는 설을 맞이해 2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1월 25~31일 1탄에 이어, 2탄은 2월 1~7일 진행되며, 각 회차별 할인 제품은 다르게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봄에 입기 좋은 아이템들이 특별 가격에 판매된다.

2주간 특별가로 선보이는 공통 제품은 베스트셀러로 구성됐다. 유니클로의 ‘설날 해피 워크’ 프로모션에서는 겨울철 및 간절기 필수 아이템인 경량 패딩이나 히트텍, 고급 천연 소재 캐시미어 100% 남성용 스웨터 등이 할인가로 판매된다.

지유의 ‘GU 럭키 워크(GU LUCKY WEEK)’ 프로모션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봄 인기 상품을 특별가로 만나볼 수 있다. 기능성 이너웨어 ‘지유 워밍(GU Warm)’의 일부 상품이 2주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컬리수도 리본 벨트 증정 이벤트 및 신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다이어

당은 20~50%, 일구구엑스키즈(199XXKIDS), 오브(OV), 까이에 등의 코트류는 브랜드별로 10~50% 할인한다.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는 내달 11일까지 ‘2019 설날 기획전’을 진행한다. 휠라, 탑텐, 커버넌트 등 주요 인기 브랜드 상품부터 카테고리별 베스트셀러, 신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뷰티 브랜드 랑콤은 설을 맞아 연령대별 스페셜 세트로 구성된 ‘2019 랑콤 설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30 여성들을 위한 선물로는 랑콤의 베스트셀러 스킨케어 세트를 선보인다. 랑콤의 대표 에센스인 ‘제니피끄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여행용 7종 키트와 레드 에어리 파우치 또는 여행용 2종 키트와 ‘제니피끄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증정한다. 또한 대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인 ‘제니피끄 더블 드림 앰플’, ‘레네르지 탄력 광채 크림 마스크’, ‘제니피끄 안티-다크써클 아이크림’, ‘레네르지 반중력 탄력 아이크림’ 구매 고객에게는 여행용 3종 키트가 함께 제공된다.

랑콤의 베스트셀러 메이크업 제품인 ‘뽕 아돌 롱라스팅 파운데이션’은 미니 파운데이션 브러쉬와 함께 구성된 세트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대별 추가 사은품 증정 및 더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동시에 진행된다.

아앤드에서는 2월 9일까지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이 제공되며, 행사 기간 동안 네나 4종 세트를 포함한 아앤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애경산업 식초 성분 함유한 섬유유연제 ‘아이린’

애경산업의 섬유유연제 브랜드 아이린(iRin)은 식초 성분을 함유하고 세제 찌꺼기 제거에 도움을 주는 ‘아이린’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아이린은 세탁 시 세제 과사용 및 세탁기 성능 등에 따라 섬유 속 에남을 수 있는 세제 찌꺼기의 깔끔한 행균을 위해 식초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아이린은 식물유래 유연성분을 함유해 섬유유연 효과는 물론 정전기 방지에



도움을 준다.

아이린은 은은한 꽃향기를 콘셉트로 선호하는 향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린 핑크로즈, 아이린 메리골드, 아이린 블루데이지 총 3종을 출시했다.

/김민서 기자